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7)(12/24/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1 장 마음의 욕망들을 잘 살피고 다스림, 1- 4 절

시 108:1 - 하나님이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 6:10 -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빌 2:21 -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고후 10:3 -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1. <그리스도> 아들이, 네게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 <제자> 주여,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2. <그리스도> 네 마음이 온전히 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만을 원하게 하여서(시 108:1; 마 6:10), 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열렬히 사랑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라. 흔히 욕망들이 네 마음에 불을 질러서 너를 난폭하게 휘몰아간다. 그러나 너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나라면, 너는 내가 무슨 일을 명하여도, 거기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네 속에 숨겨져 있다면(빌 2:21), 그것은 내가 명한 일을 네가 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명한 일이 네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너는 나와 상관없이 네가 혼자 어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기뻐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지나치게 애쓰다가, 처음에는 선한 일로 여겨져서 기뻐하였던 그 일이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은 일로 밝혀져서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어떤 욕망이 처음에 선해 보인다고 해서, 즉시 욕망을 이루려고 하여서도 안 되고, 어떤 욕망이 처음에 선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그 욕망을 배척하여서도 안 된다. 선한 열망이나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열망이 지나쳐서 평정심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저항에 부딪칠 때에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실제로 어떤 때에는 종종 강제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네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고, 육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서(빌 2:12), 네 자신의 육신을 강제로라도 성령에 복종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롬 8:1-13; 고후 4:10; 10:3). 네 육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다 고분고분하게 행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 그 어떤 불편에도 불평하지 않게 될 때까지, 네 육신을 쳐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전 9:27).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진정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평생을 살아간다. 내가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다른 아닌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최악된 본성과 싸운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고했다. **엡 4:22-2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유혹의 욕심”**은 ‘정욕’, ‘허망한 욕정’, 혹은 ‘거짓된 욕망’을 의미한다. 옛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과거의 죄악되고 타락하고 오염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생한 성도는 자기 자신과 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욕과 왜곡된 욕심과 싸워야 한다. 정욕과 탐심, 혹은 욕심은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며, 내 안에 있는 적이다.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범죄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어하지 못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욕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 예수님을 찾아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마 19:22 -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말은 그 청년이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결국 욕심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다. **마 6:24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한 욕심과 애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다. **골 3:5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엡 4:23-24 에서 욕심에 사로잡힌 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따라”**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말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진,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 많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자리잡은 정욕, 탐심, 집착, 이기심, 완악함 등 나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며, 주께서 원하시는 성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회개하고 제어함으로 오늘도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나고 주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 위에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3. 추운 겨울 펜데믹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